



군종주보

2019년 11월 17일(제955호) 연중 제33주일(세계 기년법 이의 날)

발행 : 군종교구 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당부처럼 느껴집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며, 시험에 당하는 순간들이 생길 때, 우리가 지치지 않고 견디어 낼 수 있도록 걱정 가득히 하시는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걱정은 한 제자의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하느님의 때는 언제 올 것인가’라는 질문. 이 질문은 제자들도 궁금해했었고 지금 우리도 많이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날이 언제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날을 안다며 말하는 이들에게 속지 말라고 하십니다.

실제로 많은 종말론자들이 세상에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뉴스나 신문들을 통해 종말론자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는지 볼 수 있었죠. 그들의 모습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전 종말의 때를 알고 준비하는 모습이 아니라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면 어떨까’라는 질문에 종말이라는 두려움에 나 또한 저런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연약하기만 한 우리에게, 너무나 큰 두려움 앞에 자포자기하는 모습을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교는 하느님의 때가 언제인가에 대해서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날은 오직 하

느님께서만 아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당부를 기억하며 ‘그때가 왔다’라는 거짓에 현혹되지 않고 겸손히 내가 해야 할 것들을 준비합니다.

오늘 주님께서서는 복음의 말미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인내로써 생명을 얻어라” 종말을 바라보며, 종말에 대한 두려움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인내하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반드시 옵니다. 때문에 우리는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다른 종말론자처럼 종말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현실에 충실한 종말론자입니다.

종말의 때가 도래했을 때,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라고 외칠 수 있도록 두려움이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희망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대로 인내로써 생명을 얻으시길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홍승진(베드로) 신부
백두산(21사면) 성당 주임

- | | |
|----------------|---|
| 제 1 독 시 | 말라 3,19-20 |
| 회 답 송 | ◎ 백성들을 올바르게 다스리러 주님이 오신다. |
| 제 2 독 시 | 2테살 3,7-12 |
|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 | ○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다. ◎ |
| 복 음 | 루카 21,5-19 |
| 영 성 제 송 | 저는 하느님 곁에 있어 행복하옵니다. 주 하느님을 피신처로 삼으리이다. |

한국의 성인 복지 124위

이순이 루갈다



성인명: 이순이 루갈다 (李順伊 Lutgarda)

신분: 양빈, 동정 부부, 순교자

활동연도: 1782-1802년

‘유희’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던 이순이(李順伊) 루트가르디스(Lutgardis, 또는 루갈다)는 1782년 한양의 유명한 양반 집안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였다. 1802년에 순교한 이경도 가물로와 1827년에 순교한 이경언 바오로는 그녀와 남매 사이이고, 1801년에 순교한 유중철 요한은 그녀의 남편이다.

1793년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 이 루갈다는 어머니와 함께 열심히 교리를 실천해 나가면서 오로지 영혼을 구하는 일에만 몰두하였다. 그리고 1795년에는 주문모 야고보 신부로부터 첫영성체를 하였다. 이때부터 이 루갈다는 오로지 성체를 잘 모시고 덕행을 쌓는 데에만 마음을 쏟았다. 그리고 천상배필을 위해 동정을 지키기로 굳게 결심하고 어머니에게 고백하였다. 그녀의 어머니는 이 말을 듣고는 매우 놀랐지만 딸의 선택을 허락해 주었고, 주 야고보 신부와 이 문제에 대해 의논하였다. 그때 주 신부의 머리에는 동정 생활을 하기로 결심한 전주에 살고 있는 유중철 요한이 떠올랐으며, 이에 곧장 사람을 보내 둘의 혼인을 주선하였다.

1798년 10월, 이 루갈다는 남편의 고향인 전주 초남이(현, 전북 완주군 이서면 남계리)로 가서 남편과 함께 시부모님 앞에서 동정 서약을 하고, 오누이처럼 일생을 살겠다고 다짐하였다. 1801년에 신유박해가 발생한 지 얼마 안 되어, 이 루갈다가 살던 초남이에도 포졸들이 들이닥쳤다. 이때 그들은 이 루갈다의 시아버지 유허검 아우구스티노를 가장 먼저 체포하여 한양으로 압송하였고, 이어 그녀의 남편 유 요한도 체포하여 전주로 끌고 갔다. 이 루갈다는 그해 9월 중순경에 나머지 가족들과 함께 체포되었다. 전주로 끌려간 그녀는 함께 갇혀 있는 가족들을 위로하며 순교의 길로 나아가자고 권면하였다.

그 뒤, 이 루갈다는 유배형을 받고 함경도로 떠나게 되었다. 이때 그녀가 친척들을 대표하여 ‘법에 따라 처형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소용이 없었다. 이 루갈다가 친척들과 함께 유배지로 떠난 지 얼마 안 되어 전주에서 파견된 포졸들이 쫓아와 그들을 다시 체포하였다. 그러자 그녀는 ‘이제 순교할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에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였다. 다시 감사 앞으로 끌려간 이 루갈다는 사형 선고를 받은 다음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되었다. 그럼에도 이 루갈다는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않았으며, 4~5일 뒤에는 형벌에 의한 상처가 말끔하게 나았다고 한다.

감사는 결국 조정에 사형 판결을 요청하였고, 얼마 뒤에 임금의 윤허가 내려오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순이 루갈다는 1802년 1월 31일(음력 1801년 12월 28일) 친척들과 함께 숲정이라고 불리는 전주 형장으로 끌려나가 참수형으로 순교하였으니, 이때 그녀의 나이는 20세였다.

복

음

록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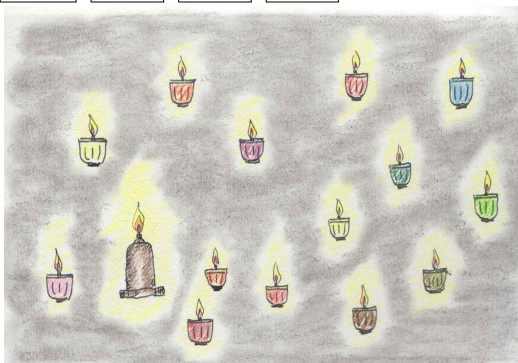
모진 마음 밝히며

서운해지니
모질어지더이다.

돌아와 생각하니
미안하고
죄송스러울 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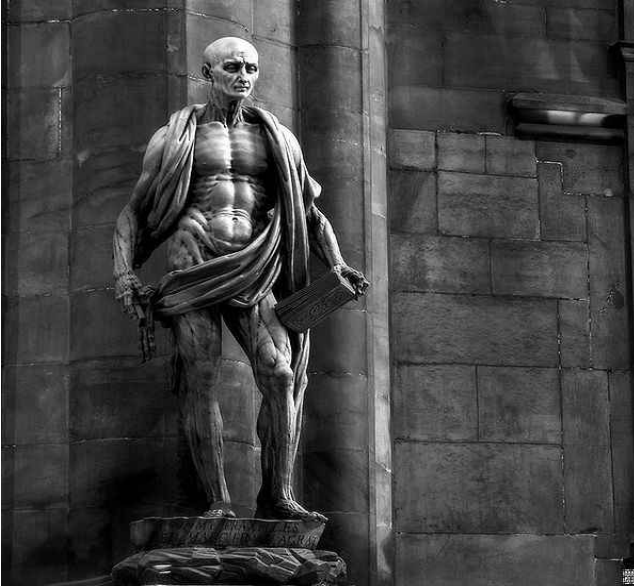
가는 길
밝게 가시라고
고운 초 하나
불 밝혀
기도합니다.

행복하소서.



상화이야기

바르톨로메오 성인



밀라노 대성당 주 제대 근처에 세워져, 방문객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작품이다. 바르톨로메오 성인은 산채로 피부가 벗겨지는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지며, 이를 묘사하는 많은 작품이 남겨졌는데, 밀라노의 두오모 주교좌 성당에 있는 본 조각상은 자신의 벗겨진 피부를 들고 서 있는 성인을 보여주고 있다.

바르톨로메오 성인은 어깨에 자신의 거죽을 걸치고 있는데, 조각의 뒤편으로 돌아가 보면 성인의 벗겨진 피부의 두상이 있어 얼굴을 볼 수 있다.

미르코 디 그레이트, 1562년 제작

밀라노 대성당, 이탈리아



해부학적으로도 정확하게 묘사된, 피부가 벗겨져 힘줄과 근육만으로 관객을 형형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 작품은, 한번 보면 쉽게 잊을 수 없는 작품이다. 해부학(과학)과 종교적 신념이라는, 어찌 보면 양립하기 어려운 문제를 풀려는 조각가만의 고민의 결실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이 모든 일에 앞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할 것이다. (중략) 이러한 일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오늘 복음말씀 중)

김은혜(엘리사벳)

교구소식

군중후원회 회원들 위헌 미사 - 연중 제33주일: 포진병원 친화성 신부

◆ 교구장 동정

- 국군중앙 주교좌 성당 미사
때: 11월 17일(주일) 11:00
- 2019년 수녀 연수
때·곳: 11월 19일(화)~21일(목), 안양 아론의 집
- 군중후원회 지도신부 간담회
때·곳: 11월 22일(금) 10:30, 군중교구청

◆ 잇숨 성가대 창립 20주년 기념 및 성탄축하 음악회

때·곳: 12월 14일(토) 19:00, 국군중앙 주교좌 성당
국군장병이 있는 곳이라면 전후방 어디라도 찾아가는 잇숨 성가대를 아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성탄축하 음악회를 준비하였습니다. 많은 참석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연주문의 : 홍민영 비비안나 010-3837-5039

“모든 이를 삼키는 삶” - “네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요한 13,14)